

담배 문제는 지금, 일본 뿐 아니라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규칙을 만들어서 담배를 피우는가 피지 않는가를 정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배는 인간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담배를 피면 자신에게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도 담배피는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직접 흡연의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담배를 피는 것도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남이 ‘해라’ 라든가 ‘안된다’ 고 간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규칙을 만들면, 언제 어디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규칙이라는 것이 사람의 자유에 관한 것이나 권리에 관한 것을 다루면 정말로 애매한 것이 됩니다만 담배의 문제는 완전히 인간의 자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규칙은 절대로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칙보다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공공 장소에서는 금연이라고 정하고, 동시에 흡연자를 위해서는 특별히 흡연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담배에는 더욱 강한 경고문을 넣어서 스스로 피지 않게 되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에게 담배를 파는 가게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는 것은 자신의 자유이고, 자신의 문제이므로, 규칙 등으로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